

# 2020년 첫 출발, 땅끝해남서 해맞이 하세요

31일부터 '해님이 해맞이 축제' 달집태우기·불꽃놀이 등 다채 오시아노 다도해 배경 나조 유명 기원제·떡국 나눔행사도 진행

한반도의 시작, 해남 땅끝마을에서 2019년 마지막 해를 보내고 2020년 첫 태양을 맞는 해님이·해맞이 축제가 열린다. 해남군은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땅끝마을에서 '제24회 땅끝 해님이 해맞이 축제'를 개최한다.

해남 땅끝은 다도해의 일몰과 일출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장소다.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곳, 땅끝마을의 상징적 의미가 더해 매년 해님이 해맞이 축제가 열린다.

31일 오후부터 해님이 행사와 버스킹 공연에 이어 밤에는 소원피 달집태우기, 새해맞이 카운트 다운, 불꽃놀이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새해 1월 1일에는 띠배 띄우기와 풍물놀이, 해맞이 행사 등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행사가 열린다.

올해는 오시아노 관광단지외 두루산 오소재에서도 각각 해님이·해맞이 행사가 열린다.

오시아노 관광단지는 반도형태인 해남의 서쪽 끝으로 서남해의 다도해를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나조가 유명하다.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해남 땅끝마을에서 '제24회 땅끝 해님이 해맞이 축제'가 열린다. 지난해 행사 모습. <해남군 제공>

해님이 사진 촬영대회, 사랑의 편지쓰기, 떡메치기, 고구마 구워 먹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선보인다.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노래자랑, 해님이 제례, 해상 불꽃 쇼 등이 준비됐다.

복일면 두루산 오소재 공원에서는 2020년 1월 1일 새벽 5시부터 경자년 해

맞이 행사가 펼쳐진다. 오소재는 지역주민들이 주로 찾는 해맞이 명소로 최근 도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주차장이 조성되면서 올해부터는 관광객들까지 함께할 수 있게 됐다.

해맞이 기원제와 함께 해맞이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떡국 나눔 행사도 갖는다.

이용범 해남군 관광과장은 "땅끝 해남

해맞이는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는 의미 있는 새해 첫날로 기억되도록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을 마무리하는 일몰 시각은 12월 31일 오후 5시 34분이며 2020년 새해 일출은 1월 1일 오전 7시 40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 해남군, 청정마을 융복합사업 본격 추진

농림부, 향토산업 육성사업 선정 30억 사업비 받아

해남군 '땅끝해남 청정마을 융복합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 향토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농림식품부 향토산업육성 사업은 농촌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향토자원을 발굴, 1·2·3차 산업이 연계된 지역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군은 3년에 걸쳐 연구용역, 브랜드개발, 향토자원 관리화 등 사업과 함께 시설 장비 구축 등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해남군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해남마을의 생산(1차)·가공(2차)·유통(3차) 산업을 연계해 지역 핵심산업으로 자리잡히는데 역할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주요 사업은 네트워킹 구축 및 주민 역량강화, 마을종합유통센터·마늘후처리센

터 구축 등이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전국 주산지인 해남마을의 안정적 소득 기반 구축은 물론 간마늘 가공 유통 확대 등으로 해남 이미지 제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군은 전국 생산량의 3.1%, 전남 생산량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마늘 주산지 2018년 기준 1만 222ha 재배면적에서 1만 220t을 생산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전국 최대 생산 채소류 품목의 하나인 마늘 산업의 활성화에 전환점을 맞게 됐다"며 "지역 내 연관 산업까지 파급되어 농촌경제 활성화와 지역 관광에 맞는 새로운 명소로 육성하고, 농가소득 창출에도 기여하는 신 성장 동력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 진도군, 장애인 복지관에 '셔틀버스' 구입 전달

진도군이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들이 편익을 위해 소형 셔틀버스를 1억여원에 구입해 전달했다. <사진>

진도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1일 평균 이용자수가 200명이 넘지만 그동안 노후된 버스가 운행해 불편함을 겪었다.

장애인 전용 소형 버스는 25인승 버스에 매립형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해 거동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셔틀버스는 진도 전역을 1일 2회 이상 운행하며 시범 운행 기간을 거쳐 전담 운전자와 보조 인력 1명이 투입돼 운영을 돕고 있다.

진도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장애인들의 삶의 희망이 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진도군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람이 우선되는 포용 복지를 펼쳐 장애인 복지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 완도전북, 친환경수산물 국제인증 확대 총력

14개 어가 신청...군, 심사비·퇴적물 조사비 등 지원

완도군이 지역 명물인 전북의 친환경 수산물 국제인증(ASC·MSC) 확대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완도군은 지난해 아시아 최초로 14개 전북 어가에서 수산양식관리협회(ASC) 국제 인증에 이어 최근 ASC 인증 확대를 위한 본심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2기 전북 ASC 인증은 14개의 어가에서 신청했다.

군은 ASC 인증 확대를 위해 심사비 및 퇴적물 조사 등을 지원했다.

서류와 현장심사로 진행된 본심사는 글로벌 품질인증·위험관리 회사(DNV-GL)와 신청 어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사진>

이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나온다고 군은 설명했다.

완도군은 ASC 인증을 확대하면 완도 수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 및 수출 증대, 어가 소득의 안정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 완도군, '청렴도' 두 계단 상승

반부패 청렴시책 주요 '3등급' 평가

완도군의 청렴도가 지난해보다 상승한 3등급으로 평가됐다.

완도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61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2등급 상승했다.

완도군 올해 종합청렴도는 작년보다 0.95점 상승한 7.75점을 받았으며, 내부 청렴도는 7.22점, 외부 청렴도는 8.11점이다.

이는 민선 7기 들어 각종 반부패 청렴 시책을 추진한 결과 청렴도가 상승한 것

으로 보고 있다.

완도군은 올해 초 정례회의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실천 결의대회 개최, 청렴 옴부즈맨 제도 운영, 청렴도 자체 평가 시스템 개발, 찾아가는 청렴 교육을 했다.

부정부패·갈집 피해 신고 게시판 및 지원센터 운영, 찾아가는 인사 상담 서비스, 권익위 주관 청렴컨설팅, 비위공직자 인사 처벌 강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 진도군, 전국 유일 '민속문화예술특구' 선정

진도에서 유일한 민속문화예술특구인 진도군이 우수 특구로 선정됐다.

진도군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19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시상식'과 성과교류회에서 민속문화예술특구가 우수 지역 특구로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94개 특구를 대상으로 추진전략, 실적, 성과 등을 제출받아 서면평가와 현지실사 등을 거쳐 선정됐다.

민속문화예술특구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 관광·축제 활성화 부문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 특구로 지정돼 포상금 5000만원을 수상했다.

진도군은 2013년 8월 특구로 지정된 이후 진도토티민속여행,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진도개페스티벌 등 관련 인프라를 중심으로 특구를 운영해 왔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손해보험협회**

**보행자는 또 다른 정지신호입니다**

교통사고의 약 40%가 보행자 교통사고 도로 위에선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보고, 서고, 움직이는 습관이 도로 위 생명을 지킵니다